



'GAS KOREA 2006' 관심 뜨겁다

가스산업의 비전과 미래 제시... 매일 세미나, 설명회 개최

3.29(수)~4.1(토) 서울무역전시장 제 5회 서울국제가스 산업전시회(GAS KOREA 2006)에 대한 보일러설비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산업자원부, 환경부를 비롯 가스공사, 가스안전공사 외에 가스관련 16개 단체가 후원해 격년제로 열리는 '가스코리아2006'은 단순히 상품 전시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21세기 가스산업의 새로운 도전과 미래를 열기위한 특화된 전문전시회로 업계는 가스업계의 자긍심을 만방에 알리는 잔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이 5회째인 이 전시회는 그 동안 가스사업, 그리고 가스인의 숨은 역량과 신기술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관련 산업 및 가스안전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했으며, 전시기간 중 각종 세미나와 바이어 상담 및 구매계약이 이뤄지는 비즈니스의 한마당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다양한 주제로 매일 두 차례씩 개최되는 세미나 및 설명회가 볼만하다. 29일에 주택관리사협회와 도시가스사가 후원하는 '소형열병합발전' 세미나가 열린다. 이 세미나에는 소형열병합발전에 대한 정책 현황 및 사례분석, 보급 활성화 방안 등이 소개된다. 또 29일 오후에는 가정용 수소연료전지의 실용화가 추진되는 퓨얼셀 3리터 하우스의 운영사례를 소개하는 '수소연료전지 세미나'가 열린다. 30일 오전에는 전국 2만여 회원으로 이뤄진 설비업 관련 전문 인터넷 카페 '보냉가설'의 '건축물관리와 설비시공 신기술 통합 세미나'가 열리고, 당일 오후에는 산자부, 가스안전공사가 후원하고 LPG 판매사업자가 대상인 LPG 소형벌크 정책과 성공사례 중심의 'LPG 유통혁신 세미나'가 관심을 끈다.

이 밖에도 한국과 일본 DME 포럼이 주최하는 '국제 EME 포럼'을 비롯 매물형 정압기 설명회, 원격검침 시스템 세미나도 참관객들의 눈길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